

성인입양인의 생애사 연구

권 지 성⁺

(침례신학대학교)

최 운 선⁺⁺

(남서울대학교)

변 미 희

(백석대학교)

안 재 진

(숙명여자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명의 성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관찰, 기록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생애사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은 우선 연구참여자의 생애 과정을 연대기 형식으로 요약한 뒤, 인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연구참여자 사례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주제들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또한 앞서 분석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입양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개입이슈들을 파악하여 논의하였다. 주제분석에서는 ‘옹이 신세’, ‘나비가 되려는 애벌레’, ‘괜찮아요. 아니, 안괜찮아요’, ‘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사랑, 삶을 이끄는 결정적 요소’ 등의 주제들을 발견하여 제시하였으며, 입양 시점, 사후관리,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뿌리찾기, 성인입양인 대상 개입 등의 개입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입양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입양, 성인입양인, 생애사, 질적 연구

+ 제1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명의 성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관찰, 기록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생애사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아동복지서비스로서 입양의 목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 발달하여 결국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입양 서비스가 실제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입양가정에 배치된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을 추적하거나 성인이 된 입양인을 대상으로 현재 상태와 과거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역사적 맥락의 영향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비밀입양 전통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다가 2000년 이후로 공개입양이 활성화되면서 연구수행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2006년부터 공개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중단연구가 시작되면서 현실화되었다. 다만 조사를 시작할 때 영유아기와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후자의 방법, 즉 현재 성인이 된 입양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 연구는 그 대안을 선택하여 실제로 수행한 것이다.

아동복지서비스로서 입양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하여 온 서구사회에서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정책과 실천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고, 입양에 대한 연구들도 축적되어 왔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서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들을 비교하거나 요보호아동들을 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의 서비스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고, 각 서비스의 장기적인 효과를 추적조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다른 대리적 서비스(시설보호와 가정위탁)에 비해 입양의 장기적인 성과가 더 높다는 점(Bohman and Sigvardsson, 1980; Fergusson et al., 1995)과 입양인들이 아동,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발달영역에서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Maughan and Pickles, 1990). 다만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학령전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발달단계별로 다양한 입양이슈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서비스체계의 시의적절한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권지성 외, 2008).

우리는 서구사회에서 내려진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과 개입전략들을 입양현장에서 활용하면서도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즉, 서구사회에서 발견되고 개발된 정책과 실천, 이론적 맥락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장한 성인입양인들이 한국 사회의 입양제도 맥락에

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분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입양 현장에서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 입양실무에서는 입양인들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일환으로 성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입양기관의 소식지나 각종 보고서들을 통해 성인입양인들의 사례가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입양기관의 입장에서는 국내 성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개입할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대처 형식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성인입양인들의 사례 보고는 과거 경험을 단순하게 기술하는 수준에 그쳤다(안재진 외, 2012). 따라서 성인입양인들이 그동안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입양이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입양부모와 입양가정, 사회적 관계망 등 사회환경과 성인입양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엄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에서도 입양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다수의 연구는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수준과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거나 그 자녀인 입양아동들의 적응수준을 분석하였다. 일부 연구는 입양아동들을 대상으로 발달수준과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거나 입양가족을 단위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윤현선, 2001; 안재진, 2002; 구미향, 2006; 안재진, 2008; 박미정, 2009).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양적 접근을 활용한 반면에, 질적 접근을 통해 입양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연구들도 있었다(이현정, 2002; 권지성, 2003; 박경련, 2007; 조효정, 2008; 강다선, 2010).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양아동들의 발달체적을 추적하기 위한 종단연구들도 이루어졌다(변미희 외, 2007; 최운선 외, 2008; 권지성 외, 2009; 안재진 외, 2009; 최운선 외, 2010).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입양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성인이 된 입양인의 현재 상태와 과거 경험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최근에 성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나(안재진 외, 2012), 이 연구는 성인입양인들의 생애 전반에 대한 경험을 주제별로 분석하였을 뿐, 개별 성인입양인의 생애과정에 따른 변화와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기술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자신의 입양사실조차 알지 못하던 아동전기부터 입양사실을 알고 이해해 가는 아동후기, 입양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청소년기, 그리고 독립된 입양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청년기 이후의 생애과정에서 입양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입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슈들을 경험하며,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 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입양인의 생애과정을 깊이 탐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입양인의 변화와 경험을 맥락적으로, 종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 성인입양인의 생애과정에 따른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많은 사례들을 검토하여 '넓게' 분석하기 보다는 하나의 사례를 '깊이' 분석함으로써 성인입양인의 경험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성인입양인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함께 분석하여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개인의 인생을 탐구하면서 그 개인과 환경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질적 연구방법, 그 중에서도 생애사 연구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생애사 접근을 통해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은 어떠한가?”

2. 문헌검토

우선,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인의 다양한 생애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경험이 생애사적 관점에서 입양인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들에서 검토된 입양인의 생애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양인의 유아기와 아동기

(1) 자신의 입양 스토리에 대해 알기

아동에게 언제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Wieder, 1977; Brodzinsky, 1984; Brodzinsky et al., 1992),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과정을 2세~4세 사이에 시작한다. 유아기의 입양아들은 대개 스스로를 입양된 아이로 분류하고, 자신들의 입양스토리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지만,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Brodzinsky et al., 1984; 1986).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입양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지만, 부모가 이야기하는 정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입양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입양아동이 입양가족에 심리·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인선, 1994; 이미선, 2002; Melina, 1998; Brodzinsky, 2005). 국내 입양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발달단계에 따라 입양아동이 경험하는 입양됨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권지성 외, 2008)과 입양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러한 차이에 기여하는 것(최운선 외, 2011)으로 나타났다.

(2) 상실에 대처하기

상실은 친생부모와 관계를 상실하는 것뿐 아니라 입양가족과 유기적인 동질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은 이제 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부모가 그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며, 입양을 통해 가족을 얻은 동시에, 다른 하나의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특히 영아기에 입양된 아동들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상실을 포함한 것으로 입양을 평가한다(Nickman, 1985; Smith and Brodzinsky, 1994). 이러한 상실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깊어진다. 상실에는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부모와 형제자매 및 확대가족의 상실, 입양이라는 낙인과 관련된 지위의 상실,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뿌리의 상실, 유전적 연계성의 상실, 입양가족 내에서 안정감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 등이 포함된다. 한편 친생부모가 자신을 양육할 수 없었거나 혹은 양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안재진·권지성 역, 2006에서 재인용). 즉, 한 아이에게 극심한 상실을 안겨 준 사건을 다른 아이는 손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입양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권지성, 2003).

2) 입양인의 청소년기

(1) 입양을 자아정체감의 일부로 통합하기

입양인들에게도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안정되고 견고한 자아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많은 입양이론가들은 안정되고 견고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입양인들에게는 매우 복잡한 문제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영아기 동안 신뢰와 안정감의 발달을 방해하는 초기 대상관계에서의 문제,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입양가족들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감정을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입양부모와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 지나친 분리의 방어기제 사용,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지식이 제한됨으로써 혈통의 연속성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Sorosky et al., 1975).

(2) 생물학적 뿌리찾기

많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찾고,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이다. 이는 대체로 자신의 생부모와 확대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출생지를 방문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유산을 탐색하는 것에 제한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생물학적 가족과 접촉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며, 접촉을 포함한 적극적인 뿌리찾기는 대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Schechter and Bertocci, 1990).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특례법에 의해 뿌리찾기를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는 없으며, 아동기에 뿌리찾기를 시도한 사례들에 대한 탐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권지성 외, 2010). 이 연구에 의하면 입양아동의 뿌리찾기는 만 6세를 전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다가 6세경에 호기심 폭발 단계에 이르게 되며, 이때 뿌리찾기를 통해 어느 정도 호기심이 충족되면 다시 이러한 반응이 잠잠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입양에 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

입양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irk(1964)의 입양에 대한 입양가족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방적이고 차이를 인정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폐쇄적이고 차이를 거부하는 유형에 비해 가족 구성원의 긍정적인 적응에 보다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가정 내 입양관련 의사소통의 정도는 입양 청소년이 부모에게 느끼는 신뢰의 정도, 소외감의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가족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ohler et al., 2002). Stein과 Hoopes(1985)가 실시한 종단연구에서도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가정의 청소년들이 정체성 문제를 덜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양관련 의사소통이 개

방적인 집단이 입양관련 대화를 가끔 하는 집단과 폐쇄적인 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 및 자아상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3) 입양인의 성인기

(1) 적극적인 뿌리찾기

뿌리찾기는 한때 입양가족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정신병리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입양인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이며, 일종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생물학적 가족 구성원을 찾기로 결심하는 적극적인 뿌리찾기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성인기에 시작되며, 대개 생모 찾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Schechter and Bertocci, 1990).

기존의 성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뿌리찾기에 초점을 맞추어, 뿌리찾기를 시도한 입양인과 시도하지 않은 입양인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입양당시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자아정체감 등의 심리적 특성,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입양 경험, 입양부모와의 관계 등이 입양인의 뿌리찾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뿌리찾기에 적극적이며(Müller and Perry, 2001), 친생부모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연령은 대개 25~34세 사이의 성인기 초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chechter and Bertocci, 1990). 또한 입양 당시 연령도 뿌리찾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국내입양인의 경우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아기에 입양되었으며, 뿌리찾기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입양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Sobol and Cardiff, 1983; Aumend and Barrett, 1984; Müller and Perry, 2001에서 재인용), 국외 입양인의 경우에는 입양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뿌리찾기를 시도할 확률이 더 높았다(Tieman et al., 2008). 뿌리찾기를 하는 입양인들은 뿌리찾기를 하지 않는 입양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고, 정체감 문제와 부정적인 입양경험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입양부모와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인선, 1994; Müller and Perry, 2001).

한편, 원가족과 관계유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첫 상봉이후 만남 자체가 종결되는 유형에서부터 균형 잡힌 건강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chdev, 1992). 또한 입양인들의 상봉 전 친부모에 대한 기대가 상봉 후 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Gladstone and Wethues, 1998), 입양인의 친부모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친부모와 생활방식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으며,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적게 할수록 실망 정도가 적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입양인과 친가족의 관계 형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결혼과 출산

입양사실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입양인은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입양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입양됨을 인식해야만 한다(고혜연, 2004). 또한 입양인들에게 자녀의 출생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로 혈연을 나눈 사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아마 최초의 경험이 될 것이다. 아기는 입양인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살과 피를 나눈 첫 번째 관계일 것이다. 입양인이 자신의 아이를 갖고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는 친부모에 대한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감정들이 뒤섞이기 쉽다. 심지어 임신기간 동안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유전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 염려하기도 한다. 동시에 친부모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과 이러한 중대 시점의 의의를 표시하고 싶은 바람이 생긴다. 그들은 친부모들이 너무 어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였던 가난한 사람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런 친모를 용서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이윤로·이미션 역, 2007).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입양인은 친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입양부모와의 관계도 다시 검토해보게 되는데, 자신에게 '진짜 부모'는 의심할 바 없이 평생 그들을 양육해 온 입양부모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안재진 외, 2012).

(3) 입양인의 이혼과 사별

가장 초기의 상실, 친생부모의 상실을 해결하지 못한 입양인이 더 나이가 들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 그는 더욱 격렬한 애도의 감정과 싸워야만 할 것이다. 특히 입양인의 이혼이나 사별은 그들로 하여금 버림받음이라는 매우 상처받기 쉬운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시기이다. 또한 그러한 사건들이 건강의 쇠약이나 재정적인 고통과 함께 수반될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경험했던 '버림받은 고아'라는 감정들이 다시 생기기도 한다(이윤로·이미션 역, 2007). 하지만 대부분의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상실을 치유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책을 갖기 위해 일생에 걸쳐 노력하며, 이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입양인의 생애경험을 입양관련 이슈 중심으로 다루거나 생애과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주제별로 분석하는데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별 성인입양인의 심층 경험을 생애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기술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을 생애사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생애사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 연구접근 중에서 '생애사' 접근을 활용하였다. 생애사 접근은 한 인간의 생애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인간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연구방법이다(조홍식 외 역, 2010). 이 연구는 성인입양인의 개별적인 인생 경험을 탐구하면서도 그것이 전개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연구의 주제에 생애사 접근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성인입양인 1명이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여러 입양기관에 성인입양인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입양전문기관인 한 기관으로부터 연구참여자인 성인입양인을 소개받았다. 연구참여자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자 1명이 연구참여자에게 연락하여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 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접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생후 2년만에 입양되었으며, 현재 28세의 여성이다. 입양부는 사망하였으며, 입양모는 재혼한 상태다. 입양가정의 오빠 둘은 독립하여 외지에서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 해에 뿌리찾기를 시도하여 친생부와 고모, 오빠를 만났으며, 현재 친생부와 관계는 단절되었고 고모, 오빠와는 종종 연락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결혼하였다가 올해 2년여만에 이혼하여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구체적인 생애과정과 개인적 특성들은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된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접이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참여자를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총 4회 만나 모두 2시간 안팎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에서 연구자가 처음 제기한 질문은, 생애사 접근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세요'였다.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질문을 받고 나서 대체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내어 주었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나서 궁금하거나 더 듣고 싶은 대목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다시 질문하였다. 모든 면접은 MP3나 녹음전용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모두 녹취록의 형태로 전사되었다. 심층면접 이외에도 연구참여자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친생부를 만난 직후 자신이 입양된 입양기관의 소식지에 수기의 형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 실었는데, 연구자는 그것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면접 장면에서 연구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였고, SNS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심층면접의 횟수만으로는 생애사 연구라고 하기에는 자료수집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SNS를 통해 연구참여자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고, 또한 연구참여자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과 생각들을 포착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충분히 보완되었다고 판단된다.

4) 자료분석과 글쓰기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생애 과정을 연대기 형식으로 요약한 뒤, 인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연구참여자 사례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주제들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또한 앞서 분석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입양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개입이슈들을 파악하여 논의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분석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5) 윤리적 고려

이 연구에서는 윤리적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면접 첫 회기에 연구참여 동의를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난 뒤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참여자가 특정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이나 피해, 손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규정된 지침에 따라 경제적인 보상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차를 같이 마시기도 했다. 연구참여자의 비밀보장과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 본인이 실명으로 발표하기를 원하여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사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도 연구참여자와 상의하여 공개수준을 조절하였다.

4.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성인입양인의 생애과정을 요약하였고, 둘째, 중요한 전환 사건을 중심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인생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셋째, 이러한 인생 이야기에서 드러난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을 주제별로 기술하였다. 넷째, 앞서 제시된 내용들 중에서 사회복지실천의 개입이 필요했던 지점들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1) 생애과정 요약

- 1985. 08. 출생
- 1987. 입양됨. 부산에서 생활.
- 1992. 초등학교 입학
- 1995. 초등학교 4학년. 김천 집성촌으로 이사. 입양사실 인지.
- 1997. 초등학교 6학년. 입양부 사망.

- 2000. 중학교 3학년. 입양사실을 확실히 알게 됨.
- 2002. 고등학교 2학년. 입양모 재혼. 공주로 전학. 동생 출생.
- 2004. 대학교 입학. 전 남편인 남자친구 만남.
- 2005. 일하다가 병이 나서 1년간 휴학
- 2009. 02. 대학교 졸업
- 2009. 06. 입양기관을 통해 친생부를 만남
- 2009. 12. 자살 시도
- 2010. 01. 사실혼. 시댁에서 남편과 동거.
- 2010. 11. 결혼식
- 2012. 02. 이혼

2) 인생 이야기 서술

여기에서는 연구참여자인 성인입양인의 입장에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 부분에서는 성인입양인의 1인칭 시점으로 글을 썼다. 따라서 주어는 '나'가 된다. 마침 이 연구를 시작하기 2년 전에 연구참여자는 친생부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입양된 입양기관의 소식지에 그와 관련된 수기를 써서 실었다. 아래에서는 먼저 그 수기를 뼈대로 하여 친생부를 만난 직후까지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이후에는 후속면접을 통해 알게 된 뒷이야기를 주요 시기별로 서술할 것이다.

(1) 해피 엔딩

'너는 누굴 닮았니?' 어릴 적에 가장 난감하던 질문이다. 나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소심한 목소리로 '할머니요'라고 대답했다. 분명 사람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했을텐데...

양부모님은 두 형제를 두셨고 딸을 낳고 싶었지만 혹시나 모른다는 생각과 종교종사자였기 때문에 뜻에 따라 나를 입양했다. 내 나이 2살. 그때에는 가족이 많았다. 조부모님, 부모님, 오빠 두 명, 그리고 나 일곱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늘 나만 외톨이었다. 내가 입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 나이 13살이었다.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아니야, 아닐거야, 정말 아닐거야.' 그렇게 부정했던 이유는 내가 입양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주변의 시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부산에서 살다가 양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고향으로 이사를 왔다. 시골 동네 특성상 한 집 건너 한 집이 친척인 집성촌이었다. 전학을 간 학교의 같은 학년, 같은 반에 동네아이가 있었다. 돌림자도 같은, 향렬에서만 쓰는 돌림을 가진 아이였다. 그 아이와 아주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내게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너 데리고 온 애라

며?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양부모님의 뜻에 따라 입양되긴 했지만 나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진 못했다. 그나마 늘 내 편이 되어 주시던 양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며 밀접하게 지냈지만 나의 작은 잘못에도 불같이 화를 내시며 상처 되는 말씀을 하셨다. 오빠가 둘이나 있었지만 큰오빠는 내게 다정하지 않았고, 둘째 오빠는 늘 사소한 이유로 나를 때려 내 양 볼에는 늘 멍자국이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일로 많이 맞았지만 양어머니께 말씀도 못드렸다. 말해도 돌아오는 메아리는 '네가 맞을 짓을 해서'였으니까... 늘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 우는 날도 많았다.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며 자라야 할까?' 그러한 질문은 점점 나를 버린 이들에 대한 원망으로 변해갔다.

나는 참 잘 자랐다고 생각한다.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국립대학교를 다녔고 교직이수도 마쳤다. 예능 쪽에 소질이 있어 노래, 미술, 문예로 상도 자주 땀으며 대학교 재학 중에는 학교에 예쁘다고 소문이 나 소위 킨카라는 소리도 들어 보았다. 내가 왜 이런 자기 자랑을 하는 줄 아시려는지? 나는 상처받고 아프고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다. 누구보다 예쁘게 잘 자라서 훗날 나를 버린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내가 잘 자라는 것만이 복수하는 길이라고, 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쁘고 잘 자란 모습에 나를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을 만큼 날 버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만큼 잘 자라겠노라고..

하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도, 예쁘게 자란 다음에도 그들에게 나를 보여줄 길이 없었다. 막연하게 떠 올리며 '나와 닮았을까, 나의 재능은 누구의 것일까?'하는 사소한 생각을 하며 복수할 날을 기다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움은 원망보다 커졌다. 늘 그들을 원망하며 울던 내 생일에 '나를 낳고 미역국이나 제대로 드셨을까?', '분명 나를 버린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하고 혼자서 원망하고 혼자서 용서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단 한번만, 정말 단 한번만 면발치서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 한 번만으로 다 용서하고 주어진 내 삶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런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2년 전 친아버지를 찾게 됐다.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노력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바로 만나지도 못하고 찾았다는 연락 후 2주만에 만나게 됐다. 내가 먼저 입양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가정을 새로 꾸리고 계신 친부모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피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지만 친아버지께서 내가 원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며 연락이 왔다.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드디어 그분을 만나게 됐다. 나를 보자마자 우시면서 '원망 많이 했지'라고만 몇 번을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나는 '아니예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라고 대답했다. 자꾸만 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도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울지 않았다. 내가 울면 그분의 마음이 더 아프실 것 같아서였다. 마음을 추스르신 친아버지가 내가 왜 부모님과 떨어져야 했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나의 본명, 정확한 생일, 그리고 친척들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나보다 9살이 많은 친오빠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행방은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늘 부모님만 머릿속에 그리다가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오빠가 있다는 말을 듣고 뜻밖에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다. 현재 해외에 나가 있어서 아직 만나보진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나를 찾아서 너무 기쁘다며 비행기표를 끊어 줄 테니 오라고 했지만 양부모님께서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보고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권유에 해외행은 잠시 미뤘다.

아버지와는 아쉬운 짧은 만남 뒤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게 됐지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두 분이 더 늘었다. 게다가 나와 닮은,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나는 현재 양부모님 가정에서 예전처럼 슬픈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사이가 어려웠던 양어머니와는 친구처럼 친한 사이가 되었다. 내가 친부모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돌아가신 양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또한 분의 아버지도 계시고 오빠들과도 잘 지내고 있으며 나보다 17살이나 어린 늦둥이 동생과도 아옹다옹하며 잘 지내고 있다. 그런 나에게 따뜻한 두 분이 더 생겼다.

여기까지가 친아버지를 만난 직후에 쓴 인생 이야기다.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다. 꿈만 같았고, 행복했다. 그런데...

(2) 반전 드라마

추석을 앞두고 친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할머니에게 충격 받을까 봐 얘기를 못했다고 하고, 고모는 보고 싶다고 하여 같이 만났다. 나는 당시 ○○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고모가 밥과 김치도 보내 주었다. 원래 추석 때 제사를 지내고 친아버지에게 가기로 했는데, 며칠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말라고 하여 실망스러웠다.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생각하니, 전화를 끊고서 눈물이 났다.

그리고 나서 12월에 친구로부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헤어져서 혼자 있다 보니 힘들었다. 나는 상처받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폐인 생활을 하다가 친구와 연락했는데, 온통 데이고 말았다.

혼자 누워서 불을 끄고 자고 있다가 친구와 다시 통화하고, 두 번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 자살을 시도했다. 커터 칼로 세 번 손목을 그었는데, 모두 실패했다. 수습이 안되어 결국 헤어진 옛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남자친구가 와서 상황을 수습해 주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빠(엄마와 재혼한 아버지)와 큰오빠가 왔다. 큰오빠는 '잘 있다가 가더니 왜 그랬어?'라고 했고, 엄마는 '비싼 밥 처먹고 무슨 짓이냐?'라고 했다. 엄마가 연락해서 내가 힘들어한다고 했더니, 친아버지는 '내가 뭘 힘들게 했느냐'며 따지고, 내가 괜찮냐는 말도 안했다고 하였다. 그래도 그는 아싸고 나는 딸인데 어떻게 하나? 그 뒤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되었다. 결혼식을 앞두고 연락이 잘 안되어 '돈 3,000만원이라도 보내라'는 메시지를 남겼더니, 다시 연락이 와서 화를 내며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돈돈이냐!'라고 했다. 손님 때문에 끊고 다시 화가 나서 연락하여 따졌다. '마지막에 정떨어지게 해서 고맙다'고 쓰아붙였다. 나중에 다시 사과하려고 연락했으나 안받았다. 그래도 오빠와는 아직 연락하고 지낸다.

지금 화가 나는 건 내가 임신이 안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안생긴다. 나는 핏줄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엄마도 보고 싶으나 볼 수가 없다. 엄마를 닮았을 텐데... 나랑 닮은 내 자식을 갖고 싶은데, 그것조차 안되게 만들었다는 것에 화가 난다. 그때마다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우울증도 있다. 아직도 가만히 있다가도 죽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 작년 내 생일에는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서 챙겨 주셨다. 남편이 내가 일하던 카페로 갔다 주었다. 나는 사랑받는 며느리고, 남편도 잘해주고 아껴준다. 친척들도 나를 아껴준다.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남편을 통해 만나게 된 또래 커플들, 직장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그들 모두가 내가 입양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내 평소 모습을 보며 그것이 부정적인 일이 아님을 알아간다.

배신감, 버려짐, 죽을 고비, 불임... 생각할 때마다 우울해지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지만 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견딜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3) 뒷이야기

난 지금 이혼한 상태다. 수개월 전에 이혼하고 따로 집을 구해서 혼자 살고 있다.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시부모와 남편의 음주문제 때문이었다. 술만 마셨다 하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싸우곤 하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의 주정을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들었다. 다음날 술이 깨고 나면 손이 발이 되도록 벌고, 맨정신으로는 세상 누구보다도 더 착하고 잘 해주는 사람들이지만 이젠 참아줄 수가 없었다. 변변치 않은 직장, 쥐꼬리만한 월급에 자기개발도 하지 않고 일할 의욕도 없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남편을 지켜보면 늘 답답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이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시부모는 펄펄 뛰었지만,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다. 내 짐만 챙겨서 집을 나왔다. 그래도 멀리 가지는 못했다. 근처에 방을 구해서 몸을 누일 곳을 마련했다. 그러고는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다. 원래 하던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거기에서도 멀리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소개로 다른 쇼핑몰의 매장에서 일을 계속 했다.

그런데, 이것저것 물어보며 은근히 가까운 척하던 한 여성 고객이 얼마 전 자신이 알고 지내는 한 기혼남성을 소개시켜 주면서 조건만남을 주선하였다. 이 일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러한 유혹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던 나 자신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했지만, 낯선 사람에게서 그러한 제안까지 받게 된 내 처지가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 내게는 이런 일들만 생기는 것일까? 친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입양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나는 그 직장을 그만 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며...

3) 주제 분석

(1) 응이 신세

자신의 삶을 무언가에 비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정씨는 자신을 '응이'에 비유하는 글을 써서 보내주었다. 응이란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을 이르는 말로써, '굳은살' 또는 가슴에 맺힌 감정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표준국어대사전). 달리 말하자면, '응이'는 나무에서 자라던 가지가 부러지고 남은 부분으로서 나무의 입장에서 이제 쓸모가 없어지고 오히려 보기 흉해져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인 것이다. 수정씨는 자신의 처지를 이와 같은 '응이'에 빗대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나무가 친생부모인 셈이다. 수정씨가 보기에, 친생부모는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버렸는

데, 이제 다시 자신이 나타난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저는, 옹이 같은 존재인 거 같아요. 날 버린 사람들에게, 옹이 아시죠? 나무줄기에 붙어있는 썩은 가지의 흔적. 나무는 가지를 뺏어감에 따라 성장하는데, 아래에 자라난 가지가 위에 자란 가지보다 나약하고 보잘 것 없을 때 튼튼한 가지에게 피압되고 뒤틀려 점점 가지가 붙은 곳이 썩어가 결국 나무와 조직이 결합되지 않아 작은 제재를 가했을 때도 쉽게 떨어져 나가 버리죠. 옹이는 나무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니까. 많이 자라기 전 열세한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옹이가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하게 되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옹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간 엄마도 처녀행세를 하고 새로 시집갔을 텐데 그런 엄마에게 저는 필요 없는 가지였을 테고 또다시 재혼한 아버지에게도 새 부인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가지였을 테고, 내 위에 커다랗게 자라고 있는 튼튼한 가지인 9살 많은 오빠에게 오롯이 가야할 영양을 나눠야하는 겨우살이 같은 가지였을 테니 아주 어릴 적에 옹이를 만들지 않으려고 잘라내 버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지가, 잘라내 버린 가지가, 결국 커다랗고 보기 흉한 옹이가 되어 나타났으니 처음에는 옹이를 메워보려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큰 나무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메워지지 않는 옹이라는 걸 느꼈을 때 과감히 버리는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중략) 그리고, 그들에겐 내가 옹이이지만 버려진 이들에게도 가슴속엔 무엇으로도 메우지 못하는 커다란 옹이가 있음을, 버린 이나 주변인이 알아줬으면 하네요.

(2) 나비가 되려는 애벌레

수정씨는 자신을 나비가 되려는 애벌레에도 비유했다. 처음에는 보기에 징그러운 애벌레였다가 나중에 겹질을 벗고 다시 아름답게 태어나는 나비처럼, 어렸을 때는 못나고 미움 받는 애물단지였지만 자라면서 점점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애벌레를 보면서 그것이 나비가 될지 나방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아이가 커서 예쁘고 사랑받는 귀한 사람으로 자라갈지, 못나고 미움 받는 천한 사람으로 취급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수정씨 자신도 만약 지금처럼 외모와 내면을 가꾸고 옛날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나방처럼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꺼리고 피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징그럽잖아요. 다리 있어도 다리 없게 생긴 게... 징그럽잖아요. 못 생기고, 애벌레인데 나비가 될지 나방이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애네 날개들이 똑같거든요. 나방이 날면 되게 정신없고 산만하게 나는데 나비가 날면 우아하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후닥후닥거리는데, 애(나방)는 불빛만 쫓아다니면서 밤에 다니고 애(나비)는 낮에 예쁜 것만 찾아다니고 다니잖아요.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이때까지는 내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는 거울 봤을 때 못생겼다고 생각했고 사랑도 못 받았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못 받았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남편을 만나서 그런지 제가 가꾸려고 해서 그런 건지 내가 예쁘고 이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예쁨 받고 하는 거 보면 적어도 파리채로 때려죽이는 나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기를 잘 견딘 것 같아요. 똑같은 애벌레지만...

(3)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겉으로 보기에 수정씨는 괜찮아 보인다. 늘 웃는 표정이다 밝고 씩씩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다재다능하고 일도 잘해서 어디에 가나 인정받는 편이다. 직장에서 눈으로 보이는 성과도 좋다. 극진히 아껴주는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도 딸처럼 아껴주며, 입양모와도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주말에는 남편, 친구들과 놀러가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은 자주 안 괜찮다. 그 복잡한 마음을 잘 표현할 방법은 없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고, 가끔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다행히 지금은 그런 기분을 극복해낼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내면을 잘 이해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다 괜찮은 줄로 안다.

강해보이고 남들이 볼 땐 그런데, 정말 마음도 여리고 그냥 확 올라갔다 확 무너지는 스타일 이어 가지고 그래서 남편도 나 혼자 있는 거 싫어하고, 조금만 마음이 힘들면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어요, 죽으면 편하겠지? 지금도 미친 듯이 행복하다가도 미친 듯이 죽고 싶고, 조울증이라고, 뭔가 트러블이 생겨요, 마음에 부딪치는 일이 생기면 죽고 싶어요.

(4) 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수정씨가 생각하는 입양됨의 의미는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입양된 것이 아니라 친생부모의 선택으로 입양에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그렇다면 남들 앞에서 그것을 숨기거나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입양’은 이제 일상에서 나누는, 한 순간 떠올랐다가 지나쳐 버리게 되는 대화의 한 가지 소재에 머물게 되었거나 자기 정체성의 작은 일부분이 되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놀림감이 되거나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그렇지 않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놀라거나 오히려 자신보다 더 슬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별 거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더 친한 사이가 되면 대화의 소재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우는 애도 있고, 다 놀라죠, 남편처럼 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진지하게 이어나가면 솔직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죠, 위로를 해줘야 돼 울어줘야 돼? 나는 그냥 ‘안 부끄러워 그냥 나는 잘 자랐으니까’ 이러면 ‘그래 잘 자랐으니까’ 이라고 끝나요,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나 나의 비밀을 안다고 해서 뭔가 여색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니까 몰래 알았더라면 그런 것보다 낫잖아요, 얘기해서 자기 일도 아닌데 알게 돼서 끄끄 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편이고 원래 알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필하는 거 좋아하고 장점 말하는 거 좋아하고 잘난 척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던지는 농담처럼 그게 농담은 아니지만 자기소개 같은 거죠, 친구랑 얘기하다가 어릴 때 어떻게 지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아이야, 더 편해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쳐다보면 ‘내가

잘못 했나? 뭐가 불쌍하냐고 잘 컸잖아. '그래 잘 컸어' 이려고...

(5) 사랑, 삶을 이끄는 결정적 요소

수정씨의 인생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삶을 이끌어가는 결정적 요소는 바로 '사랑'이었다. '사랑 받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과 감정이다. 태어났을 때는 친생부모로부터, 입양된 이후로는 입양부모와 오빠,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결혼하고 난 후로는 남편과 시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직장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어서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왔고, 할 수 있게 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왔고, 더 예뻐지려고 노력했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다행히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고, 사랑하는 관계들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들은 아직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제가 어떤 게 부모의 사랑이고 남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뭔지는 기억도 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싫어'.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상처가 있겠지만 기억도 안 나는 상처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사랑을 많이 못 받는구나. 나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을 알았으니까. / 저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랑 그냥 개는 괜찮은 애야, 고객님들도 '언니 너무 재미있어요. 언니 잘해요' 이런 관심 칭찬들도 나에게 전부다 채워지니까 오히려 그런 거 부끄럽지 않으니까...

4) 개입 이슈

(1) 입양 시점

수정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럴 거라면 입양부모는 도대체 왜 입양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종교적인 동기(자비)와 딸을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은 다수의 입양부모들이 공유하는 입양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마음으로 입양을 하고서도, 다른 입양부모들과는 달리 이 입양모는 입양한 자녀를 왜 그렇게 미워한 것일까?

수정씨는 그 이유를 자신이 입양가족과 다르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못생겼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만한 증거들도 많이 있었다. 어린 시절 수정씨를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거나 비슷한 말들을 했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마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생겼다는 사실보다는 다르게 생겼다는 점이 더 부각되었을 것이다. 어머니 아빠, 오빠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리 살펴봐도 닮은 데가 없는 아이. 사람들은 괜한 설레발을 치며 불필요한 메시지들을 던진 것이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못생겼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그나마 닮은 구석도 없으니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입양기관들은 예나 지금이나 입양부모와 닮은 아이를 찾아 매칭해주는 작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을 닮지 않았거나 못생겼거나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해 보면, 그동안 입양기관들이 외모나 신체적 특성들을 가지고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을 매칭해 온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에 순응해 온 측면도 있다. 또한 이는 대체로 입양부모의 요구에 맞춰 온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입양기관들은 다른 측면도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 즉, 나름대로 닮은 아이를 매칭해 주었지만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입양부모들도 있고, 처음부터 신체적 특성을 요구하지 않은 입양부모들도 일부는 생물학적 차이를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 입양부모를 면담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단계부터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비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후관리

우리는, 수정씨가 입양가정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아무도 수정씨와 그 가정을 입양가정으로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수정씨가 입양되었을 때에도 법으로 규정된 사후관리는 이루어졌겠지만, 이후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입양기관과 접촉된 적이 없었다. 말 그대로 입양부모의 손에 온전히 '맡겨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입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입양'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하나지만, 입양부모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사적인 대안 중의 하나다. 즉, 입양은 공적인 서비스이면서, 사적인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국가와 입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입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족의 사적 영역에 들어온 아이와 자기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이들은 이미 자녀가 된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생활인인 입양부모의 책임이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국가가 돌봐야 할 아동을 개인이 대신 돌봐주는 것이므로 그것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서비스 제공자인 제도와 이용자인 개인/가족 사이의 틈을 벌려 놓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연구참여자인 수정씨가 자신의 인생경험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미시 맥락은 인식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중범위, 거시 맥락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수정씨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입양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친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아동복지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각각의 특별한 욕구를 갖기 마련이다. 따라서 입양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는 필수적인 것이며,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지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지난 2000년부터 국내에서 공개입양이 시작되고 확산되면서, 비밀입양과 공개입양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입양 분야 내에서도 정부, 입양기관, 입양가족, 학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현재 시점에서 살펴봐도 정부의 정책방향은 공개입양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급여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비밀입양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공개입양을 지지하는 학계와 입양가족단체들은 하나같이 입양아동의 권리 보장과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 등을 위해 반드시 공개입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다수의 입양가족들과 입양기관들은 입양사실을 공개했을 때 아동이 받게 될 충격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상처 등을 염려하며, 공개입양을 하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양측의 주장이 전적으로 맞거나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수정씨를 포함한 많은 입양 사례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현실적 이슈를 보여준다. 즉, 입양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입양아동들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양가정과 관계망 내에서 그것이 비밀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면서, 입양이라는 것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진실이 아니라는 태도를 학습하게 된다. 또한 입양가정 내에서 생활하면서 가족관계의 최소한 일부를 입양 사실과 연결하기도 한다. 즉, 입양부모가 자신을 처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입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입양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보다 입양 사실을 알아차리고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수정씨의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입양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 개방적으로 다루어 왔다면, 입양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양기관들이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점점 더 많은 입양부모들이 비밀입양보다 공개입양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입양부모들이 '아동의 입장에서' 비밀입양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한 선택의 이면에는 자신만은 '끝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이 보기에, 그러한 믿음은 별로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공개입양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입양가족들이 비밀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입양사실이 드러나면서 폭탄을 맞은 듯한 상황이 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린다. 또한 대부분의 입양아동들은 입양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크고 작은 충격을 받게 되고, 친구들이 입양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아동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건강하게 대처해 간다. 이런 점에서 입양실무의 방향은 비밀입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입양아동과 가족이 입양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대처해 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상태에서 입양기관의 대부분은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실제로 입양부모와 가족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입양기관의 실무자들이 더 적절한 실천전략들을 개발해 주기를 기대한다.

(4) 뿌리찾기

수정씨는 성인이 된 이후 입양기관의 협조로 자신의 친생부와 고모, 친오빠 등 혈육을 만났다. 입양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탓에, 혈육을 만난 기쁨은 유난히 컸다. 이들을 만나면서 수정씨는 그동안의 힘겨운 인생이 모두 보상을 받은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곧 이 만남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생부가 자신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수정씨가 처음부터 뭔가를 바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생부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조금씩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

만약 모든 입양인의 뿌리찾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우리는 뿌리찾기 서비스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친생자녀를 입양 보낸 대부분의 친생부모들은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성인이 된 입양인을 자신의 가족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뿌리찾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최소한 친생부모와 입양인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만으로 단순하게 끝내서는 안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두 성인이니까 이후에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와 입양인의 뿌리찾기 이후 관계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게 된다. 입양부모와 가정, 입양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뿌리찾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친생부모와 입양인이 만난 이후 각 이해당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예측하여 준비하도록 하며, 이들이 새롭게 구성해 갈 관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들여보고 조율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친자녀인 입양인이 뿌리찾기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입양부모의 마음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입양기관은 뿌리찾기가 시작될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입양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5) 성인입양인 대상 개입

수정씨의 사례에서, 우리는 입양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성인입양인이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슬픔을 보게 되었다. 친생부모로부터 포기되었거나 분리되어 살게 되었다는 상처와 분노, 상실감, 애도, 거기에 사랑받지 못한 채로 살아오면서 형성된 낮은 자존감이 이러한 슬픔을 가져다 주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쌓이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진다. 이 응어리는 주위에 있는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성인입양인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입양기관이 이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깊은 슬픔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고 믿는다. 입양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랜 실무경험을 쌓아온 입양기관만이 이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제대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양기관만이 그럴만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입양기관은 성인입양인들의 뿌리찾기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들의 심리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해 가

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명의 성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관찰, 기록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생애사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생애과정 요약, 인생 이야기 서술, 생애경험의 주제 분석, 생애과정 중 개입이슈 등으로 구성되었다.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에서 나타난 주제는 ‘옹이 신세’, ‘나비가 되려는 애벌레’, ‘괜찮아요. 아니, 안괜찮아요’, ‘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사랑, 삶을 이끄는 결정적 요소’ 등이었으며, 생애과정에서 개입이 필요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입양 시점, 사후관리,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뿌리찾기, 성인입양인 대상 개입 등의 개입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참여자는 자신을 ‘보기 흉한 옹이’에 비유하면서 친생부모에게 쓸모가 없어져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였다. 2살 때 비밀입양이 되어 13살 때 자신의 입양사실을 알게 된 연구참여자는 상실을 포함한 것으로 입양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즉, 입양되었다는 것은 친생부모를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양가족과 유전적인 동질성이 없다는 것을 입양사실 인지와 함께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Smith and Brodzinsky, 1994). 비록 이러한 상실에 대해 아동들이 성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안재진·권지성 역, 2006), 연구참여자는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으며, 결국 입양을 자아정체감의 일부로 통합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는 자신을 버린 친생부모가 뼈저리게 후회할 만큼 누구보다 예쁘게 잘 자라는 것이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애벌레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도, 예쁘게 자란 다음에도 자신을 보여줄 길이 없게 되면서, 친생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과 복수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와 그리움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그리움은 결국 친생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뿌리찾기로 이어졌다. 대체로 생물학적 가족과의 접촉을 포함한 적극적인 뿌리찾기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Schechter and Bertocci, 1990), 여성이 남성보다 더 뿌리찾기에 적극적인 편이다(Müller and Perry, 2001). 연구참여자는 입양 기관의 협조로 24세 되던 해에 친생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으며, 친생가족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면서 급기야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 국내 성인입양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안재진 외, 2012)에 의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성인입양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한번 만나고 난 뒤에도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게 되면서, 친생부모는 보일 듯하면서도 보이지 않고,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존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우리는 뿌리찾기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입양부모로부터 충분

히 사랑받았다고 하더라도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로 남아있으며,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다시 떠올라 삶을 고달프게 만들기도 한다(안재진 외, 2012). 연구참여자는 입양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면은 자주 안 괜찮다고 한다. 특히 결혼과 출산, 이혼이라는 생애사건을 경험하면서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다시 덧나기도 했다. 결혼 후 연구참여자는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듯싶었으나 불임으로 인해 힘들어했다. 핏줄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과 닮은 자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한다. 입양인들에게 자녀의 출생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로 혈연을 나눈 사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최초의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윤로·이미선 역, 2007). 하지만 일할 의욕도 없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남편을 지켜보면서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하고, 집을 나왔다. 입양인의 이혼은 그들로 하여금 버림받음이라는 매우 상처받기 쉬운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시기이다(이윤로·이미선 역, 2007). 하지만 연구참여자는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직장을 그만 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결정적 요소인 ‘사랑’인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성인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천적, 정책적 지침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강화 및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입양부모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입양부모는 종교적인 동기와 딸을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에 입양을 선택하였지만, 입양인 당사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진술한다. 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 양친이 될 자격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입양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입양 후에도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상담 및 사후관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국내입양 사후서비스를 정리하고, 입양사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며, 국내 입양기관들의 사후서비스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4차례의 가정방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양은 전생애에 걸친 과정이며, 입양인들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입양관련 이슈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성인입양인에게서는 취직, 결혼, 출산, 이혼, 사별 등 중요한 삶의 전환기에 입양과 관련된 이슈들을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과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법원허가제 도입으로 공개입양가정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입양실천현장에서는 공개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2살에 비밀입양되어 13살 때 자신의 입양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당한 기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입양에 대한 태도는 입양사실에 대한 강력한 부정에서부터 친생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과 복수심, 용서와 그리움, 그리고 자신이 입양된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일련의 힘든 과정을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밀입양의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공개입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양실천 현장에서는 공개입양가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양의 장단점, 공개입양 이동 및 가족의 발달적 특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넷째, 입양기관은 성인기에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뿌리찾기 및 친생가족들과 관계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입양기관의 협조로 친생부를 비롯한 친생가족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으며, 조금씩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면서 급기야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뿌리찾기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기관에서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입양삼자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생애사 접근을 통해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향후 성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들이 입양의 여러 가지 측면과 다양한 입양 관련 이슈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다선, 2010, “입양부모의 입양 경험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혜연, 2004,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미향, 2006,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가 경험하는 갈등의 유형과 특성분석”, 『아동학회지』, 27(3): 117-133.
- 권지성, 2003,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입양홍보회 참여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 2008, “입양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 『한국가족복지학』, 23: 71-102.
- _____, 2009,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2008년 2차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입양홍보회.
- 권지성·안재진·변미희·최운선, 2010, “입양가족의 뿌리찾기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209-233.
- 박경련, 2007, “한국사회에서의 입양부모들의 입양공개 경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 2009,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인선, 1994,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미희·권지성·안재진·최운선, 2007,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2006년 1차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입양홍보회.
- 안재진, 2002, “우리나라 공개입양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홀트사회복지연구』, 2: 1-46.
- _____, 2008, “국내입양가족의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 2009, “국내 입양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개입양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9: 187-219.
- _____, 2012, “성인입양인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8: 67-97.
- 안재진·권지성 역, 2006, 『누가 진짜 부모인가』, 서울: 학지사.
- 윤현선, 2001, “국내입양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수행자신감, 가족적응력간의 관계: 자조모임 참가 입양부모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2002,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윤로 · 이미선 역, 2007, 『입양의 생애주기』, 서울: 신정.
- 이현정, 2002, “입양형태에 따른 입양부모의 양육경험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효정, 2008, “공개입양 가족의 입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공개입양 어머니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흥식 · 정선옥 · 김진숙 · 권지성 역,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
- 최운선 · 안재진 · 변미희 · 권지성, 2008, “입양아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II - 1차년도 자료의 사회성 발달과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2(4): 473-502.
- _____, 2011, “국내 입양아동의 입양됨에 대한 인식 연구”, 『인간발달연구』, 18(4): 169-182.
- 최운선 · 변미희 · 안재진 · 권지성, 2010,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10년 3차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입양홍보회.
- Aumend, S., and Barrett, M., 1984, “Self-concept and attitudes toward adoption: A comparison of searching and non-searching adult adoptees”, *Child Welfare*, 63: 251-259.
- Bohman, M., and Sigvardsson, S., 1980,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registered for adoption: A 15-Year follow-up.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1: 339-355.
- Brodzinsky, D. M., 1984, “New perspectives on adoption revelation”, *Adoption and Fostering*, 8: 27-32.
- Brodzinsky, D. M., 2005, “Reconceptualizing openness in adoption: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45-166, in *Psychological Issues in Adoption: Research and Practice*, edited by Brodzinsky, D. M., and Palacios, J., Westport, CT: Praeger.
- Brodzinsky, D. M., Schechter, D., and Brodzinsky, A. B., 1986, “Children’s knowledge of adoption: Developmental changes and implications for adjustment”, in *Thinking about the Family: Views of Parents and Children*, edited by Ashmore, R., and Brodzinsky, D., NJ: Lawrence Erlbaum.
- Brodzinsky, D. M., Schechter, M. D., and Henig, R. M., 1992, *Being Adopted: The Lifelong Search for Self*, New York: Doubleday.
- Brodzinsky, D. M., Singer, L. M., and Braff, A. M., 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adoption”, *Child Development*, 55: 869-878.
- Fergusson, D. M., Lynskey, M., and Horwood, L. J., 1995, “The adolescent outcomes of adoptio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6(4): 597-615.
- Gladstone, J., and Wethues, A., 1998, “Adoption reunions: A new side to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 *Family Relations*, 47(2): 177-184.
- Kirk, H. D., 1964, *Shared Fate*, New York: Free Press.
- Kohler, J. K., Grotevant, H. D., and McRoy, R. G., 2002, “Adopted adolescents’ preoccupation with adoption: The impact on adoptive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93-104.
- Maughan, B., and Pickles, A., 1990, “Adopted and illegitimate children growing up”, 36-61, in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edited by L. Robins., and M. Rutter, New

-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lina, L. R., 1998, *Raising Adopted Children*, New York: Harper Perennial.
- Müller, U., and Perry, B., 2001, "Adopted person's search for and contact with their birthparents II: Adoptee-birth parents contact", *Adoption Quarterly*, 4(3): 39-62.
- Nickman, S. L., 1985, "Losses in adoption: The need for dialogu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40: 365-398.
- Sachdev, P., 1992, "Adoption reunion and after: A study of search process and experiences of adoptees", *Child Welfare*, 66: 50-68.
- Schechter, M. D., and Bertocci, D., 1990, "The meaning of the search", 62-92, in *The Psychology of Adoption*, edited by Brodzinsky, D., and Schechter, 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D. W., and Brodzinsky, D. M., 1994, "Stress and coping in adoption: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91-99.
- Sobol, M. P., and Cardiff, J., 1983, "A socio-psychological investigation of adult adoptees' search for birth parents", *Family Relations*, 32: 477-483.
- Sorosky, A. D., Baran, A., and Pannor, R., 1975, "Identity conflicts in adopte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5: 18-27.
- Stein, L. M., and Hoopes, J. L., 1985, *Identity Formation in the Adopted Adolescent*,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Tieman, W. T., Ende, V., and Verhulst, F. C., 2008, "Young adult international adoptee's search for birth pare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678-687.
- Wieder, H., 1977, "On being told of adoption", *Psychoanalytic Quarterly*, 46: 1-22.

A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an Adult Adoptee

Kwon, Ji Su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Choi, Woon Sun

(Namseoul University)

Byun, Mi Hee

(Baekseok University)

Ahn, Jae Ji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ife experiences of an adult adoptee.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an adult adoptee, observation, and documents and analyzed using life history approach. Results of analysis were composed of summarized life history, thick description of life history, theme analysis, and issues for intervention. The themes generated from analysis are 'a slub', 'a larva that want to be a butterfly', 'I am okay. No, I am not okay', 'because it is not my fault', 'love, the critical determinant leading my life'. Researchers, also, examined intervention issues of adoption, post-adoption service, closed adoption or open adoption, searching root, intervention for adult adopte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ies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adult adoptees were suggested.

Key words: adoption, adult adoptee, life history approach, qualitative research.

[논문 접수일 : 12. 10. 01, 심사일 : 12. 10. 16, 게재 확정일 : 12. 12. 24]